

# 본회 회보 광고, 문턱 낮췄다

— 후원사 간담회 개최, 광고료 대폭 아양 조영 —

본회 회보 광고료가 대폭 인하돼 기존 광고주는 물론, 신규 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광고주들도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본회는 침체된 양록업계의 활성화 일환으로 광고료를 하향 조정, 기존 광고주들에게는 경영비 지출을 줄이는 한편 영세 업체에게는 참여 문턱을, 회보를 구독하는 양록인들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과 정보획득 기회를 넓혔다.

본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월 8일 회보 「월간 한국양록」후원사 간담회를 개최, 참여한 광고 후원사들에게 취지를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본회 김수근 회장은 “그 동안 본회 회보 광고 협찬을 통해 들심양면으로 협회를 도와주신 후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인하된 광고료 여력은 양록업 전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다. 광고료 인하로 줄어들 본회 세수에 대해서는 “광고료가 인하됨에 따라 더욱 많은 광고주들이 본회 회보를 이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 동안 광고주들이 자사 홍보 목적은 물론, 협회를 도와 양록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 광고를 협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뜻에

부합코자 본회 임원부터 솔선하는 자세로 광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업체 대표는 “사업 홍보차 광고를 실시해왔지만 광고료가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본회의 광고료 인하 방침 환영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후원사 간담회가 실시되어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는 점이 뜻깊었다”며 이날 행사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연중 행사로 이어가자는 의견을 피력기도 했다.

한편 인하 조정된 광고료는 컬러광고 한페이지(내지기준)가 25만원에서 15만원(6개월 이상, 단발 광고시는 20만원)으로, 단도광고가 15만원에서 10만원 등 최고 월 35만원에서(표 4기준) 최하 5만원이 인하 조치됐다. **한국양록**

